절대 숨차지 않는 법

(눅14:1-14)

1.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2.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4.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5.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7.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8.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절대 숨차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절대 숨차지 않는 법'
황영조 마라톤 선수나, 아프리카의 전설적인 마라토너 아베베.
폐활량이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베베가 문제가 아니고 황영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아무리 뛰어도 숨차지 않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아! 신기하겠죠,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베베도 숨이 차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뛰어도 숨이 차지 않는다!
아! 신기한 거예요.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400Km를 갔는데도 숨이 하나도 안 차다, 자동차로 말하면 400Km를 뛰었는데도 연료가 하나도 소모가 안 된다, 대단한 거지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육체는 혹시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아무리 살면서 달려도 숨이 차지 않을 수 있다.

비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창병을 고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고창병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냥 고창병 환자를, 수종병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setting을 이 고창병 고치는 사건이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setting 속에서, 주님께서 고창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안식일을 주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 내용이 무엇이냐를, 선민들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으니까, 알고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안식의 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라.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전달하시려는 안식의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의 내용이 무엇일까?
고창병이라고 하는 것과 안식을 연결시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하나는, 18년 동안이나 척추가 꼬부라져 붙어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 사건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가 보고 있는 것은 '아! 안

식의 내용이라는 것이 주님의 이 행동을 통한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캐치해 볼 때, 파악해 볼 때 무엇이냐? 허리를 펴는 것이다, 이게 안식이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펴야 된다.'

그러면 안식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허리가 꼬부라져 있다는 겁니다.
왜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마음에 채워서 마음이 만족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사람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오류이지마는, 잘못된 판단이지마는 그 판단 속에서 선한 것이라는 게 바로, 내 마음의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마땅한 대상이, 선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것이 이 땅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땅에 어딘가 있을 거야, 이 세상 속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 땅에 내 마음을 채워서 기쁘고 행복할 것이 어딘가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이 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척추가 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상황이 안식이 임한 상황이다, 허리를 펴라! 십자가를 통해 허리를 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창병을 고치면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창병이 뭐냐? 수종병이라고 그러고 고창병이라고도 그러는데, 물이 차는 겁니다.
뇌에 물이 차고, 가슴에 물이 차고, 배에 물이 차는 거예요.
보통 현대의학으로는 심부전이나 간경화가 있을 때에, 이 복벽과 복강사이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큰~ 수박을 담은 것처럼 배가 불러지잖아요.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숨이 찹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데려다가'
지금은 안식일이고,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앞으로 예수님께서 데려오십니다.

이게 바로 고창병 말기, 수종병 말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수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숨이 차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기에 임하게 되면 설사 치핵 등이 생기고 피까지 토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된 겁니다.
숨이 차고, 힘이 들고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도저히 행동거지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고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숨이 차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복수가 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수를 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뇌에 물이 차고, 가슴에 물이 차고, 배에 물이 찹니다.
물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예를 드시냐 하면, 5절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우물에 빠졌으면'
그러니까 고창병 걸린 사람의 마음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수종병 걸린 이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물이 차서 병이 났다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보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물이 찬다는 게 어떨 때 가능한 일인가?
물을 빼야 되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물이 차는지.
우리 마음에 왜 물이 차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회당에서 모임이 끝나고 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은, ㄷ자 형태의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럴 때 상석은, 그 ㄷ자 중에 저쪽 끝자리가 상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연장자들일까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여간 그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신경을 쓰는 것을 주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연장자가 온다든지 더 높은 사람이 올 때는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이미 다~ 자리가 꽉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때는 맨~ 끝자리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망신 아니냐, 망신살이 뻗치지 말고 아예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다 보면 '아이구,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좀 이리로 올라오시지요!'해서 차라리 이게 영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겸손을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 겸손입니까? 결국 말씀의 내용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낮은 자리에 가서 있어라, 그러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로 올라 갈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 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있을 때 '나'가 있고,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 지는 '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의, 사람들 앞에서의 그 '나'를 위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나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변호하고, 강화하고, 위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과 연관 지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해 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올라오세요, 라고 말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이 안식과 연관성 속에서 무엇을 뜻하

느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의 너를 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다~ 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활동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마찬 가지에요.
14절까지, 사람을 청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지금 바리새인이 식사를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청해서?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아~ 이번에는 제가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잘 얻어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내야지요!' 해서, 내가 차려준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잘~ 차려서 내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높은 사람들, 자리를 잡은 사람들, 기득권층의 사람들,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다 마음의 복수(腹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 자신을 위하려는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일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맺어라, 내게 돌아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관계를 맺으라.
그러면, 너를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도 보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았을 때 주인이 올라오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의 나를 챙기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대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일방적으로 상대방만 생각하고 대접을 해 버리면, 내게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부활은, 주님이 재림할 때도 부활이지마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부활도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인생이 왜 숨이 찹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합니다.
문 밖에서, 현관에서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헐레벌떡 지갑 챙기고 왔다가는 또~ 급해 갖고 잊어버려서 핸드폰 챙기려 들어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숨이 찹니다.
아내들이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화장하느라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나를 위해서 애 쓰느라고.
이게 모~든 남자고 여자고, 모든 인생에서 내가 살면서 숨이 차는 이유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의 나를 챙기고, 나를 높이고,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예쁘게 보이게 하느라고 숨이 찹니다.
전혀 사람들 앞에서의 '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숨찰 일이 없습니다, 힘겨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겨운 게 전부, 나를 방어하느라고 힘겹고, 나를 변호하느라고 힘겹고, 나를 예쁘게 보이느라고 힘겹고, 나를 감추느라고 힘겹습니다.
나를 위하려는 마음만 없으면, 숨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힘겨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고창병이 걸릴 일이 없고, 수종병이 걸릴 일이 없고, 마음에 물이 차서 조금만 움직여도 마음이 숨이 차고 힘들고, 힘겨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나에 대해서는.

어제 식으로 말씀 드리면, 내가 사람들 앞에 있는 나를 위하려는 것도 오지랖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그리신 게 있고, 챙기시려는 계획이 있고,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의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소원에 대해 여지를 드리시라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거에요.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자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이 말씀은, 높아지기 위한 방법으로 낮아지는 길을 채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높아질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 가장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우리는 높이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있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혀~ 내 마음 속에는 사람들 앞에 있는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나를 위하려는 마음이 아예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챙기시기 때문에, 아예 높이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1cm도 높이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챙기실 경우에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져서 연합하게 됐을 때, 안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도 제쳐놓고 가족문제도 제쳐놓고, 다 제쳐놓은 이유가 하나님과만 마음을 집중해서 관계하려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런 안식이 주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쪽으로 향해서 달려오시면서, 사람들 앞에 있는 내 모습도, 안식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챙겨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의 참 뜻이.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을 왜 지켰느냐?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실 것이다, 높아지는 한 방편으로 안식일을 지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방편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자! 어찌해야 이 마음에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라는 이 복수를 빼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생각을 짜 내잖아요? 마음의 뇌에 물이 차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내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내 가슴에 물이 차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언제나 내 이득을 생각하잖아요? 배에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지치고 힘겨운 이유가 바로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여 있는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멋진 모습, 높은 모습, 강화된 모습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버려요, 다 죽여 버리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면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웃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웃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보는 이웃에게로 내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기를 잊고 살았습니다.
볼품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사도 바울을 기독교의 맹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추앙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챙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사람들 사이에서 멋진 나를 만들고 싶은 이 마음이 죽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죽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나를 제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십자가이니까, 저절로 몰려 갈 수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밖에 안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만납니다.
거기서 온전한 만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이웃만 보게 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때, 지치지 않아요.
마음에 힘겨운 일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살고 살고, 뛰고 뛰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난 하거나 누가 나를 욕하거나 나를 원수 삼거나 상관하지 마요,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갖지 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하나도 답답한 게 없습니다, 힘겨울 게 없습니다.
나를 지키려니까 힘겹지요.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그 사람과 싸워야 되고, 그 사람의 공격에 맞서야 되니까 힘겹고 지치지요.
누가 뭐라고 욕하든지 말든지 오해하든지 억울한 누명을 씌우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상관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고 살아가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내 모습을 챙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의 나를 챙기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대로 활동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려라.
'이것이 안식의 한 측면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를 높이려 생각하며 마음의 뇌에 물이 차고, 그저 백만 사람이 모여 있어도 내가 나를 제일 좋아하므로 가슴에 물이 차고, 어찌 하든지 내게 득이 되는 걸 생각하므로 배에 물이 차서, 이렇게 삶이 숨이 차고 힘겹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나를 위하려는 내가 죽게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모습을 그려 가실 수 있는 은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